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8월 2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4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더 예배중심, 하나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최혜린 -

할렐루야! 저는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주중에도 우리 교회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지원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자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단체 활동에 직원들의 참여를 일체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 규정 중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단순한 집회로 규정하고 참석한 직원에게는 징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교회가 주중예배와 주일예배 모두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부활주일에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와 병행하여 교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봉사선교회 구역장으로서 청년 구역원들을 섬기던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안내 봉사에도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올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게 시간이 지나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서서 순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저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와 봉사를 마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2주 동안 자가격리되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는 출근에만 2시간이나 걸리는 인천의 회사로 전근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또 다시 규정을 어길 경우 퇴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처음에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마음이 답답하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중에 신령한 많은 것을 깨달으며 마음에 위안과 격려가 되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서 제가 직장생활에서 경험한 것과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첫째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앙상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친구의 전도로 은혜와진리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발전하여 청년봉사선교회와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겨 봉사하는 것이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자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연약한 신앙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함께 유튜브와 우리 교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일하고 나태해졌습니다. 월요축복기도회가 화요축복기도회가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나약해진 신앙상태를 보며 이를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에 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깨닫자 비록 교회에는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한없이 감사하였습니다. 예배마다 몇 번씩 설교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방침은 저에게 단지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과 목숨보다 귀중한 신앙을 지키는 것 중 양자택일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갈 경우 퇴사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은 후,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음이 무척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몇 주 동안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청년봉사선교회의 예배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구역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에 자리에 나아갔지만 한편으로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한복음 4:23),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편 51:17) 하신 말씀의 은혜로, 저는 고민하면서 답을 내리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고 제 마음을 정당화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를 모르고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 예배를 위해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 어떤 핍박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법사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좇아 선택하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함께해 주시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설교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만 같아서 듣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말씀에서도 저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찢리고 울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교훈해 주셨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런 굳센 믿음과 신실한 행동을 본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판단 기준과 일의 성패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여 행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삶임을 알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셋째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이 말세지말이고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과 153아카데미 교육, 대한민국 바로알기 교육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이슈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중에 많은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겪으면서 더 피부로 느끼며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저는 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제의 위기에 처한 현실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저는 더욱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북한이나 중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면...’하는 생각을 해보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국가안보와 교회를 위해,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살며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를 체험하고 인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항상 겸비한 자세로 예배하며 섬기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합니다. 저의 이 젊은 날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습관, 예배하고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습관을 온전하게 갖추기까지 더욱더 신앙생활에 정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1권 (제3단원 :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10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 본문 : 요한복음 1:1-13
- 요절 :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마 4:16)
- 찬송 : 96장(새찬송가 84장), 208장(새찬송가 289장)

아담의 타락 이후 죄 지은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 짙은 어둠이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었으며 삶의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과 육신은 죽을 운명에 처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해 주신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요 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비취면 어두움은 즉시 물러갑니다. 따라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삶에는 그 빛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1. 생명의 빛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사 9:2)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간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생명을 잃었으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하셨으며,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고 하셨습니다.

죄 지은 연고로 날 때부터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2. 소망의 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가운데 거하며 천국을 기쁨으로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걱정 근심 대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가난 대신 부요를 얻게 되며, 눌린 상태에서 놓여나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과 내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3. 인도의 빛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인생길에 빛을 비취 주심으로 그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올바른 길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참된 삶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질만 추구하던 그가 예수님의 빛 안에서 변화되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캄캄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영안을 밝혀 주시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4. 치료의 빛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말 4:2). 예수님은 치료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취 주심으로 그에게 오는 자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고, 병어리가 말하게 하였고,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마 4:24)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의 병과 함께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 혼, 육의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가운데에도 치료의 빛을 비취 주십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곳마다 개인의 삶이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사회가 치료되어 보람 있는 삶, 화목한 가정,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은 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치료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기쁜 소식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영생을,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길 잃은 자들에게 참 길을,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얻도록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옥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